

□ 6월 위기, 풍전등화의 한국사회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노동투쟁 불가피

총파업 돌입 막기위한 정부결단 요구돼

이병우

(민주노총 정책부장)

지금 한국의 노동자와 민중은 사상 유례 없는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 이미 김영삼 정권 때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그렇잖아도 노동자 민중의 생활이 악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다.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현장을 뒤덮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가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고, 실업자는 정부 공식통계로는 150만을 넘어섰지만, 언론과 일부 기관들은 벌써 300만을 훨씬 넘어섰다고 한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고, 빈민은 폭력적으로 잠자리마저 빼앗기고 있으며, 농어민은 생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 학생들도 취업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 미래의 예비 실업자로 몰리고 있으며 이미 40만에 가까운 졸업생이 실업자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은 없다.

민주노총 2기 집행부는 자체의 투쟁력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제사회단 체로 구성된 '고용·산업 대책 및 재벌개혁'과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민주·진보 진영의 주요한 역량이긴 하지만, 민주노총의 투쟁력 여하에 따라 그 힘의 위력은 제약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다. 또한 투쟁 동력 형성의 조건에 있어서 노동자 민중은, 한편으로는 정권과 자본의 엄청난 이해충돌이 공적 때문에 투쟁 동력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함으로 인해 조건과 생각의 차이를 넘어 투쟁해야



▲ 98년 상반기 총력투쟁은 이후 투쟁과 노동운동 향방에 결정타가 된다 (사진: 중앙포토뱅크)

한다는 기운이 일고 있다. 내부의 조건이 아직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지난 노동절 투쟁은 이러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5월 20일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정세보고에서 "IMF 구제금융이 물고 온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권의 등장으로 조성된 정세에 맞서 60만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버림 끝으로 몰린 1,300만 노동자 그리고 실업자, 빈민, 농민, 학생 등 피억압민중의 생존권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임무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당위일 뿐, 현실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으며 이어 98년 5월 투쟁에 대해 "98년 상반기 총력투쟁의 의의는 이후 투쟁의 승패와 노동운동의 향방

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반기 총력투쟁으로 최소한 정권과 자본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저지선을 치고, 그 투쟁성과를 바탕으로 11월 전국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하는 2단계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98년 최대의 투쟁목표인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쟁취를 위해 상반기 5, 6월에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기본으로 하는 총력투쟁을 배치한다. 그리고 노동기본권 강화투쟁, 민주적·정치적 권리쟁취투쟁, 사회개혁투쟁을 중시투쟁요구인 고용·생활안정요구와 밀접히 결합시켜 98년 투쟁으로 배치한다. 5, 6월 투쟁의 파고를 7월경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연대투쟁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하반기 전국 노동자대회를 다시 한번 전노동자 및 전민중적 투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투쟁의 승패와 노동운동의 향방

안으로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주 40시간제 법제화 등) △고용·실업자 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고용세 도입 등)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노동3권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IMF 재협상(과도한 긴축정책 등)을 결정하고 전조직적인 교육 선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5월 총력투쟁의 기본 방침은 중앙 집중, 집결 투쟁을 통해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전국적 총력투쟁 전선을 형성, 민주노총 요구안을 갖고 대정부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다.

언론의 초미의 관심인 노사정위원회의 참가는 이미 밝힌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신 교섭의 틀과 방식은 투쟁의 힘에 바탕해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총력투쟁은 5월 16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총력투쟁선언 5대 요구안 발표 대정부 협상 제안, 5월 2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력투쟁 결의와 대정부 협상 촉구, 5월 23일 일공공, 금속연맹 등 부문별 집회와 26일 까지 대정부 협상 촉구, 5월 25일과 26일에 민주노총과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일정이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협상에 대한 정부측 결단이 없을 경우 5월 27일 오후 1시를 기해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 돌입에 이어 5월 2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전조직 행동 통일 지침, 중앙일간지 광고 등의 투쟁을 진행해 나가면서 재차 대정부 협상을 촉구한 후 정부측 태도를 주시하고 투쟁본부 대표회의를 거쳐 6월 10일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강 단 시 론

자유시장경제 제대로 적용해야

크기는 같으나 맛은 약간씩 다른 먹을 것이 주어졌을 때 어느 것부터 먹을 것인가?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수 있다. 맛이 없는 것을 먼저 먹고 맛있는 것은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먹는다는 것이 그 반대의 순서로 먹었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경제학 원론은 맛있는 것부터 먹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배가 고프지도 부르지도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맛이 덜한 것을 먹고 맛이 있는 것을 먹으면, 맛이 있는 것을 먼저 먹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반감되어 총효과가 최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초미의 관심인 노사정위원회의 참가는 이미 밝힌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신 교섭의 틀과 방식은 투쟁의 힘에 바탕해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총력투쟁은 5월 16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총력투쟁선언 5대 요구안 발표 대정부 협상 제안, 5월 2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력투쟁 결의와 대정부 협상 촉구, 5월 23일 일공공, 금속연맹 등 부문별 집회와 26일 까지 대정부 협상 촉구, 5월 25일과 26일에 민주노총과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일정이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협상에 대한 정부측 결단이 없을 경우 5월 27일 오후 1시를 기해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 돌입에 이어 5월 2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전조직 행동 통일 지침, 중앙일간지 광고 등의 투쟁을 진행해 나가면서 재차 대정부 협상을 촉구한 후 정부측 태도를 주시하고 투쟁본부 대표회의를 거쳐 6월 10일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협상에 대한 정부측 결단이 없을 경우 5월 27일 오후 1시를 기해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 돌입에 이어 5월 2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전조직 행동 통일 지침, 중앙일간지 광고 등의 투쟁을 진행해 나가면서 재차 대정부 협상을 촉구한 후 정부측 태도를 주시하고 투쟁본부 대표회의를 거쳐 6월 10일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협상에 대한 정부측 결단이 없을 경우 5월 27일 오후 1시를 기해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 돌입에 이어 5월 2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전조직 행동 통일 지침, 중앙일간지 광고 등의 투쟁을 진행해 나가면서 재차 대정부 협상을 촉구한 후 정부측 태도를 주시하고 투쟁본부 대표회의를 거쳐 6월 10일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협상에 대한 정부측 결단이 없을 경우 5월 27일 오후 1시를 기해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 돌입에 이어 5월 2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전조직 행동 통일 지침, 중앙일간지 광고 등의 투쟁을 진행해 나가면서 재차 대정부 협상을 촉구한 후 정부측 태도를 주시하고 투쟁본부 대표회의를 거쳐 6월 10일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협상에 대한 정부측 결단이 없을 경우 5월 27일 오후 1시를 기해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 돌입에 이어 5월 2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전조직 행동 통일 지침, 중앙일간지 광고 등의 투쟁을 진행해 나가면서 재차 대정부 협상을 촉구한 후 정부측 태도를 주시하고 투쟁본부 대표회의를 거쳐 6월 10일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협상에 대한 정부측 결단이 없을 경우 5월 27일 오후 1시를 기해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 돌입에 이어 5월 2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전조직 행동 통일 지침, 중앙일간지 광고 등의 투쟁을 진행해 나가면서 재차 대정부 협상을 촉구한 후 정부측 태도를 주시하고 투쟁본부 대표회의를 거쳐 6월 10일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협상에 대한 정부측 결단이 없을 경우 5월 27일 오후 1시를 기해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 돌입에 이어 5월 2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전조직 행동 통일 지침, 중앙일간지 광고 등의 투쟁을 진행해 나가면서 재차 대정부 협상을 촉구한 후 정부측 태도를 주시하고 투쟁본부 대표회의를 거쳐 6월 10일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협상에 대한 정부측 결단이 없을 경우 5월 27일 오후 1시를 기해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 돌입에 이어 5월 2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전조직 행동 통일 지침, 중앙일간지 광고 등의 투쟁을 진행해 나가면서 재차 대정부 협상을 촉구한 후 정부측 태도를 주시하고 투쟁본부 대표회의를 거쳐 6월 10일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협상에 대한 정부측 결단이 없을 경우 5월 27일 오후 1시를 기해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 돌입에 이어 5월 2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전조직 행동 통일 지침, 중앙일간지 광고 등의 투쟁을 진행해 나가면서 재차 대정부 협상을 촉구한 후 정부측 태도를 주시하고 투쟁본부 대표회의를 거쳐 6월 10일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협상에 대한 정부측 결단이 없을 경우 5월 27일 오후 1시를 기해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 돌입에 이어 5월 2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전조직 행동 통일 지침, 중앙일간지 광고 등의 투쟁을 진행해 나가면서 재차 대정부 협상을 촉구한 후 정부측 태도를 주시하고 투쟁본부 대표회의를 거쳐 6월 10일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협상에 대한 정부측 결단이 없을 경우 5월 27일 오후 1시를 기해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 돌입에 이어 5월 2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전조직 행동 통일 지침, 중앙일간지 광고 등의 투쟁을 진행해 나가면서 재차 대정부 협상을 촉구한 후 정부측 태도를 주시하고 투쟁본부 대표회의를 거쳐 6월 10일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협상에 대한 정부측 결단이 없을 경우 5월 27일 오후 1시를 기해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 돌입에 이어 5월 2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전조직 행동 통일 지침, 중앙일간지 광고 등의 투쟁을 진행해 나가면서 재차 대정부 협상을 촉구한 후 정부측 태도를 주시하고 투쟁본부 대표회의를 거쳐 6월 10일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협상에 대한 정부측 결단이 없을 경우 5월 27일 오후 1시를 기해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 돌입에 이어 5월 2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전조직 행동 통일 지침, 중앙일간지 광고 등의 투쟁을 진행해 나가면서 재차 대정부 협상을 촉구한 후 정부측 태도를 주시하고 투쟁본부 대표회의를 거쳐 6월 10일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협상에 대한 정부측 결단이 없을 경우 5월 27일 오후 1시를 기해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 돌입에 이어 5월 2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전조직 행동 통일 지침, 중앙일간지 광고 등의 투쟁을 진행해 나가면서 재차 대정부 협상을 촉구한 후 정부측 태도를 주시하고 투쟁본부 대표회의를 거쳐 6월 10일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려 하고 있다. 이래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때문에 제 2의 환란 위기가 점쳐지고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부의 인위적인 보호와 혜택이 아니다. 관치금융에서 길들여진대로 은행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재벌들이 외형을 더 크게 할 때가 아니다. IMF로 문제가 되는 모든 것들은 시장으로 내보내야 한다. 시장은 강력하기 때문에 시장원리를 어기는 행동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시장은 더 이상 국경에서 멈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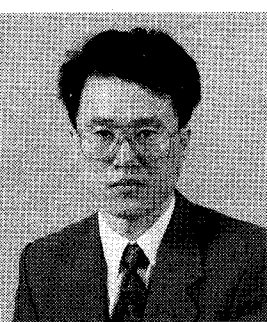
않으며, 막을 필요도 없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기업을 합병하여 미국에서 장사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시장엔 정글이 아니다. 시장에는 모든 주체들이 지켜야 할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있고 이를 어기는 반경쟁적 행위를 규율한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

업이 진정으로 실력이 있는 기업이다. 저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다. 모든 것을 다 잘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최소의 비용이 아니라 최대의 비용으로 그렇게 됐다는 점은 우리의 재벌을 보면 알 수 있다.

산은 강을 막지 못하고 강은 산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정부는 기업이란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자들은 산을 떠나 강을 막으려 해왔고, 강줄기를 돌려 산으로 넘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단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자연의 순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종국

(경제학과 교수)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진실, 역사 속에서 밝혀지리라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정신계승과 명예회복을 위한 '98년도 제1차 학술회의

'단 하나 남은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고통스런 죽음으로 이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열사라고 부릅니다'

지난 22일 오후 4시, 종로성당에서는 약 100여 명의 청중과 함께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의 주최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정신계승과 명예회복을 위한 '98년도 제1차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안병욱(가톨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

며 기조연설 강간길(고려대) 교수, 발제 김봉우(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및 한충목(전국연합)집행위원장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강간길 교수는 "민주 의열투쟁의 배경은 항일 의열투쟁이었다"며 민주 의열 투쟁의 역사적 위치와 명예회복의 문제에 관한 기조 연설을 했다.

또한, 해방후에도 의열투쟁이 계속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을 거쳐 성립되었기 때문이고, 국민정부와 의열투쟁 명예회복 문제는 김대중 정권이 집어친 역사적 과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김봉우 소장은 발제문에서 반민특위의 구성과 문제점, 4월혁명과 광주민중항쟁 및 전두환, 노태우 처벌 등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며 과거의 모든 잘못된 역

사를 청산하고 바로세워야만 나라도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한충목 집행위원장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명칭 구분과 각각에 대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방향에 관한 논리를 펼쳤다.

'열사'라는 호칭은 동료와 조직, 나아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분신, 투신, 활복 등의 방식으로 산화한 경우에 부르는 것이라며 호칭의 당위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또 민족민주열사·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방법으로 그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위원회를 조직할 것과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했다.

두 발제자의 발제 이후에는 청중들과 발제자들간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사회 단상

한총련 의장 선출

지난 22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측은 제6기 한총련 의장을 투표로 통해 선출했다. 이날 투표는 총원 1382명 중 불참 23명, 재적대의원 1145명, 그 중 투표인원 675명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손준혁(영남대 총학생회장)군이 556표를 득표하고 고희철(외대 총학생회장)군이 114표를 얻어 제6기 한총련 의장으로 손준혁(영남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되었다.

(정리: 김수란기자)



경희대학교 예산공고

자금예산서(교비회계 및 기성회회계)

(1998. 3. 1~1999. 2.28)

부속병원 자금예산서

(1998. 3. 1~1999. 2.28)

수익사업회계 자금예산서

(1998. 3. 1~1999. 2.28)

법인회계 자금예산서

(1998. 3. 1~1999. 2.28)

기관명: 경희대학교				(단위: 백만원)			
과목	수입	지출	잔액	과목	수입	지출	잔액
1.등록금	101,761	1.보수	65,374	6.인사보조금회수	229		
(1)입학금	3,205	(1)교원보수	47,399	(1)인사실사료	1,093		
(2)수업료	62,279	(2)교원보수	17,975	(2)파견차량비	50		
(3)기타수입	33,629	(3)교원보수	16,153	(3)출장차량비	2,043		
(4)입학수입	2,648	(4)교원보수	4,897	(4)기타수입	443		
2.전입 및 기부금	30,916	(5)장비관리비	440	7.교장부채입금	1,304		
(1)경상비입금	4,643	(6)장비관리비	308	(1)장기차입금지출	1,300		
(2)장비관리비	1,547	(7)장비관리비	47	(2)단기차입금지출	1,043		
(3)장비관리비	376	(8)장비관리비	976	(3)장기차입금지출	7,345		
(4)장비관리비	7,082	(9)장비관리비	56	(4)장기차입금지출	1,812		
(5)장비관리비	215	(10)장비관리비	378	(5)장기차입금지출	1,812		
(6)장비관리비	129	(11)장비관리비	711	(6)장기차입금지출	2,170		
(7)장비관리비	2,800	(12)장비관리비	463	(7)장기차입금지출	9,651		
(8)장비관리비	6,210	(13)장비관리비	213	(8)장기차입금지출	2		
(9)장비관리비	1,118	(14)장비관리비	572	(9)장기차입금지출	1,070		
(10)장비관리비	392	(15)장비관리비	355	(10)장기차입금지출	1,255		
(11)장비관리비	212	(16)장비관리비	275	(11)장기차입금지출	886		
(12)장비관리비	6,192	(17)장비관리비	1,507	(12)장기차입금지출	500		
3.교육연구비	2,865	(18)장비관리비	585	(13)장기차입금지출	5,879		
(1)입학원사대	87	(19)장비관리비	94	(14)장기차입금지출	7		
(2)수업료	1,940	(20)장비관리비	111	(15)장기차입금지출	40		
(3)장비관리비	113	(21)장비관리비	515	(16)장기차입금지출	25,638		
(4)대여료 및 사용료	432	(22)장비관리비	310	(17)장기차입금지출	6,112		
(5)논문연구비	139	(23)장비관리비	275	(18)장기차입금지출	1,288		
(6)실습수입	156	(24)장비관리비	447	(19)장기차입금지출	408		
(7)기타교육연구비	138	(25)장비관리비	430	(20)장기차입금지출	2,253		
4.교육의 수입	7,734	(26)장비관리비	225	(21)장기차입금지출	30		
(1)예금이자	7,200	(27)장비관리비	1,034	(22)장기차입금지출	15,504		
(2)장기차입금지출	534	(28)장비관리비	248	(23)장기차입금지출	2,103		
5.부속병원	4,189	(29)장비관리비	32,173	(24)장기차입금지출	1,291		
(1)부속병원	130	(30)장비관리비	12,276	(25)장기차입금지출	802		
(2)부속병원	980	(31)장비관리비	1,883	(26)장기차입금지출	10,187		
(3)부속병원	78	(32)장비관리비	10,187	(27)장기차입금지출	2,220		
(4)부속병원	3,000	(33)장비관리비		합 계	156,118	합 계	156,118

1998. 5.25

경희대학교 총장 조정원

기관명: 경희의료원				(단위: 백만원)			
과목	수입	지출	잔액	과목	수입	지출	잔액
1.의료수입	146,619	1.의료비용	129,861	(1)의료수입	144,462		
(1)의료수입	144,462	(2)의료비용	54,109	(2)의료수입	2,157		
(2)의료수입	2,157	(3)의료비용	55,317	(3)의료수입	2,404		
(3)의료수입	2,404	(4)의료비용	19,934	(4)의료수입	2,404		
(4)의료수입	2,404	(5)의료비용	501	(5)의료수입	50		
(5)의료수입	50	(6)의료비용	16,118	(6)의료수입	50		
(6)의료수입	50	(7)의료비용	1,576	(7)의료수입	3,000		
(7)의료수입	3,000	(8)의료비용	1,576	(8)의료수입	1,576		
(8)의료수입	1,576	(9)의료비용	1,146	(9)의료수입	8,489		
(9)의료수입	8,489	(10)의료비용	1,146	(10)의료수입			
(10)의료수입		(11)의료비용	1,146	(11)의료수입			
(11)의료수입		(12)의료비용	168	(12)의료수입			
(12)의료수입		(13)의료비용	6,693	(13)의료수입			
(13)의료수입		(14)의료비용		(14)의료수입			
(14)의료수입		(15)의료비용		(15)의료수입			
(15)의료수입		(16)의료비용		(16)의료수입			
(16)의료수입		(17)의료비용		(17)의료수입			
(17)의료수입		(18)의료비용		(18)의료수입			
(18)의료수입		(19)의료비용		(19)의료수입			
(19)의료수입		(20)의료비용		(20)의료수입			
(20)의료수입		(21)의료비용		(21)의료수입			
(21)의료수입		(22)의료비용		(22)의료수입			
(22)의료수입		(23)의료비용		(23)의료수입			
(23)의료수입		(24)의료비용		(24)의료수입			
(24)의료수입		(25)의료비용		(25)의료수입			
(25)의료수입		(26)의료비용		(26)의료수입			
(26)의료수입		(27)의료비용		(27)의료수입			
(27)의료수입		(28)의료비용		(28)의료수입			
(28)의료수입		(29)의료비용		(29)의료수입			
(29)의료수입		(30)의료비용		(30)의료수입			
(30)의료수입		(31)의료비용		(31)의료수입			
(31)의료수입		(32)의료비용		(32)의료수입			
(32)의료수입		(33)의료비용		(33)의료수입			